SOCIETY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추석 연휴 주차장 무료 개방
광주교육청·학교 등 153곳

광주시교육청은 추석 연휴기간 귀성객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 3~9일 본청을 비롯해 산하 교육기관, 학교 등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개방되는 곳은 시교육청 본청, 동·부교육지원청 등 행정기관 15곳, 일선 학교 138곳 등 총 153곳이다. 현재 공사 중인 학교와 기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방하지 않는다.

특히 시교육청은 본청 자주식 주차장을 포함해 총 313면을 개방할 예정으로, 인근 주택가의 주차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주차장 개방 시간은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므로, 이용에 앞서 개방시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기관별 개방일 등은 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주차장 이용 시에는 △차량 전면에 비상 연락처 남기기 △시설물 훼손 금지 △쓰레기 무단 투기 자제 등 이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주차장 개방을 통해 귀성객들이 주차 걱정 없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해 시민 편의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친일파 박영효, 일본 경제수탈·황민화교육 첨병"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이자 식민지역사박물관 명예관장인 심정섭씨가 30일 조선공민교육회 자료와 임곡공립보통학교 교원촉탁장, 만한실업협회 특별회원증 등 3점을 본보에 독점 공개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심정섭 명예관장, 조선공민교육회 수료증 등 3점 공개
화순탄광 사장·진도보식원 조합장 등 역임…온갖 특혜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거두였던 박영효가 일제의 경제적인 수탈과 황민화 교육 완수의 첨병으로 활동한 사실이 문서로 공개됐다.

30일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이자 식민지역사박물관 명예관장인 심정섭 사백(82·광주 북구)은 조선공민교육회 자료(가로 39㎝·세로 27㎝)와 임곡공립보통학교교원촉탁장(19.5㎝·27㎝), 만한실업협회 특별회원증(11㎝·9㎝) 등 3점을 본보에 독점 공개했다.

박영효(1861~1939)는 1872년 12세의 어린 나이로 철종의 넷째 딸인 영혜옹주와 결혼, 일약 부마(사위)가 돼 금릉위(錦陵尉)에 봉해졌다. 영혜옹주가 4개월 만에 사망했지만 부마로서 박영효의 지위는 계속됐다.

이후 1884년 갑신정변 주역이자 개화파의 영수였던 박영효는 두 차례의 일본 망명생활 끝에 친일파로 전락했다. 식민지 교육 정책과 종교나 그 활동에 대한 회유, 통제, 탄압책으로 민족의식 말살에 앞장섰고, 일제로부터 받은 온갖 특혜를 누렸다.

특히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후작에 임명됐다. 조선 귀족회장을 거쳐 1912년 7월 조선 귀족들의 식림사업, 농장 경영 등을 위해 진도군에 조직된 임업조합 '보식원' 조합장으로 취임했다.

경성방직 사장을 맡은 뒤에는 1930년 6월 화순무연탄회사 사장, 1931년 조선공민교육회 회장, 1932년 조선인 최초로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의원을 역임한 친일거두가 됐다.

이중 박영효는 조선공민교육회 초대 회장이 되면서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갑급 학교 교원들의 연수를 통해 '황민화교육'을 완수하는데 충실했다.

당시 조선공민교육회는 일본이 지정한 교원양성기관으로, 임시교원(촉탁원)이 정식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조선공민교육회의 연수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임시교원들은 해당 연수를 받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고 심 명예관장은 전했다.

이중 심 명예관장이 공개한 문서는 박영효가 1935년 3월 전남 임곡공립보통학교(현 광주임곡초등학교) 임시교원이 된 박석주에게 발급한 수료증서다.

증서에는 '본회의 소정(규정)에 의해 전 과정을 수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료증을 받은 박석주는 정식교사인 훈도가 됐다.

박영효는 1914년 4월10일 '만한실업협회' 총재로 부임, 전남 함평군 학교면에 거주하던 독지가 한봉섭에게 특별회원증을 발행했다.

문서에는 '만한실업협회에 적극 참여하고 거액의 찬조금을 납부해 감사의 뜻을 담아 특별회원으로 위촉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유효기간은 2년이었다.

만한실업협회는 일제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조선인들이 만주와 한반도에서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신분보장을 해줬다.

당시 만주는 토양과 산림 자원이 비옥해 콩, 곡물, 목재 등 다양한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었다. 현재도 콩은 만주의 대표 자원이다.

특히 '땅만 파도 연탄이 나온다'는 입소문이 나올 정도로, 만주는 '노다지' 땅이었으나 조선인은 마음대로 장사를 차리거나 이동조차 할 수 없었다.

천일전쟁 승전국인 일본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때 민한실업이 발행한 회원권은 조선인들의 신원을 보장하는 통행증이자 여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 명예관장은 "박영효는 조선 최고의 귀족인 후작을 일제로부터 받았다"면서 "친일 경제계의 거두이자 민족 반역자의 수괴였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충장축제 자원봉사자 발대식 30일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회 추억의 충장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발대식에 참석한 임택 동구청장, 동구의회 의원, 자원봉사단체 대표 및 충장축제 자원봉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산구 '황룡강생태길30' 새단장
테마형 코스·대형 홍보판 조성…명품길 활성화 기대

광주 광산구가 '대한민국 1호 도심 국가습지'인 황룡강생태길30을 활성화하기 위해 테마형 코스를 조성했다.

30일 구에 따르면 '황룡강생태길30'은 광주에서 유일하게 섬이 있는 송산근린공원부터 대한민국 첫 도심 국가습지로 지정된 황룡강 장록습지,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동곡 두물머리까지 약 12㎞에 이른다.

광산구는 '황룡강생태길30'이 걷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길의 면모를 갖추도록, 주요 구간의 특색을 살린 테마형 코스 조성을 추진해 왔다.

길의 특성, 역사성, 정체성 등을 담은 디자인을 개발, 이를 활용한 이정표 12개, 기념사진 촬영 구역(포토존) 3개, 친환경 안내판 3개 등을 설치했다.

황룡강생태정원 인근에 방치된 옹벽은 '황룡강생태길30' 홍보관으로 재탄생했다.

황룡강생태정원은 계절 꽃이 식재돼 많은 시민이 찾는 곳으로, 광산구는 미적 경관을 개선하고, 대외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로 길이가 12~16m에 달하는 대형 홍보판 3개를 옹벽에 설치했다.

홍보판은 '황룡강생태길30'의 명칭과 황룡강 장록습지에 서식하는 대표 동물인 수달을 형상화한 시각적 디자인을 담았다.

이와 함께 광산구는 '황룡강생태길30'의 단절된 구간을 잇고 시설을 정비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테마형 코스 조성과 대형 홍보판 조성으로 '황룡강생태길30'이 문화, 생태, 예술이 어우러진 광주 대표 명품길다운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구간별 시설을 활용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해 많은 시민이 찾고, 걷는 길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고싸움놀이 구경오세요"
3일 남구 칠석동 테마공원

광주 남구가 한가위 연휴 첫날인 오는 3일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공원에서 고싸움놀이 예술축제를 개최한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한가위를 맞아 지역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문화 보존 필요성 및 가치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공원 일원에서는 고싸움놀이 시연을 비롯해 다채로운 체험 마당과 놀이마당이 열린다.

체험 마당과 놀이마당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펼쳐진다.

줄패장 의복 체험과 그립톡 만들기, 연 만들기, 줄팽이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굴렁쇠와 활쏘기, 제기차기, 투호를 던지며 신명 난 놀이도 온종일 즐길 수 있다.

고싸움놀이 공연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고싸움놀이 보존회 회원들은 30분여간 진취적이면서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고싸움놀이의 진면목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연 뒤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 줄다리기 대회를 비롯해 한가위 음식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